

보호하면서 생존권을 찾고자 하는 농축산 계통의 생산자로서는 초유의 자조금을 또 다시 조성하고 정착하는데 있어 누락자가 전

혀없는 일체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21세기에는 선진 낙농으로 지향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모든 낙농을 하는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한다. ☺

(필자연락처 : 0348-958-2586)

지속적 추진으로 낙농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심우봉

낙농자조금운영위원(충북)

1. 서 론

지난 세월을 한결같이 우유와 유제품들을 소비해 주신 소비자분들에게 양질의 우유 및 유제품 생산을 위하여 우리 낙농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알리고, 이러한 우리들의 결실에 대한 계속적인 사랑을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낙농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낙농자조금사업은 이 같은 의미에서 출발하여 첫해를 보내고 있어 지금까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이켜 봄으로써 더 나은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처음 시작은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들출시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부각보다는 현재 우리 낙농가 스스로의 자금을 통한 활동으로 우유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우유에 대한 아미지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 낙농자조금사업 첫해로써의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써 긍지를 가진다.

2. 현황

전국 약 14,000여 농가 중에서 약 80% 정도되는 약 11,000여 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낙농자조금사업은 현재 우유 소비 홍보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약 16천톤 정도 되던 분유 재고량의 감소 및 현재 시유 판매량이 재고없이 소진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낙농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신문, TV, 잡지 등의 광고, 지하철 광고, 우유요리책자 등의 발간 등 수 많은 행사들로 우유소비를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은 결식아동, 무의탁 노인 등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금조성과 유업체 및 유가공업체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약 17억 정도로써 정부 보조금 8억을 포함하면, 총 25억원정도의 자금으로 국내에서 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3. 반성

낙농가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여 한모임으로써 한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말 그대로 자조금이라 함은 특정 브랜드로 공동 마케팅을 펼치기 어려운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해 누구의 구애 없이 스스로가 조성하는 기금이지만, 낙농가 참여율 100%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 소비자들 층면에서는 더욱 큰 믿음과 신뢰가 생길 것이며, 우리 낙농가들을 보는 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식만이 다르다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많은 홍보 활동들이 좀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 일부 소비자들은 낙농의 현재의 모습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우유소비를 위한 홍보가 옛날보다 눈에 많이 보이는구나 정도로 생각되고 있을 뿐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같은 인터넷 세상에 낙농자조금의 내용이나 우유소비 추진을 위한 홍보가 웹상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우리 낙농가와 축산에 관련된 사람들겠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듈다.

마지막으로 낙농자조금 사업 이야기로 NGO(비정부단체) 활동이라 할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지만, 정부로부터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리라 본다. 물론 일부 정부보조금이 있지만 이런 재정적인 도움 뿐만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여러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결 론

처음 시작은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돌출시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부각보다는 현재 우리 낙농가 스스로의 자금을 통한 활동으로 우유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우유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 낙농자조금사업 첫해로써의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낙농가의 한 사람으로써 긍지를 가진다.

이러한 낙농자조금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올해 보았던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낙농산업의 기틀과 외적으로는 단합된 힘을 보일 수 있어 낙농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된다. ☺

〈필자연락처 : 0446-881-7631〉

우리낙농인들이 자조금사업의 장을 활짝 열었다



주 우 식

낙농자조금운영위원(충남)

어떻게 하면 낙농인들이 땀과 정성으로 이루어낸 자조금 25억을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하고 자조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명확하고 한 점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쓰려고 심혈을 기울여 의논하여 텔레비전, 신문, 잡지, 지하철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지금은 원유가 부족한 상태에 와 있다.